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3월 16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16(금)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3. 15.(목)	담당부서	전자전기과	
담당과장	이진광 과장(044-203-4340)	담당자	방규철 사무관(044-203-4343)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IoT 가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산업부,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발표 -
- IoT 가전·스마트 홈 상생협력 및 실증사업 협력 MOU 체결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 16.(금)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산학연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 3.16(금) 11:50 ~ 13:50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광주광역시)
-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광주광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위니아, 쿠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H공사, SH공사, 코맥스, 현대통신, 에스원, 와이즈넷,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진흥회, 스마트홈 협회 등 20여명

- 간담회에 앞서 업계와 산업부는 대기업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가전, 통신, 건설사 등 다양한 업종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다.

< 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상생협력 MOU 개요 >

- ◆ 체결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대우위니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에스원, 와이즈넷, 코맥스, 현대통신, 전자진흥회
- ◆ 협력 내용 : ①국내 중소·스타트업에 제품개발 기회 제공, ②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 인력, 투자, 시장개척 지원 ③이업종 기업 간 기술교류 등 협의체 운영
- ◆ 향후 계획 : ‘IoT 협업센터’ 지원 중소기업 확대 (‘17년 100개사 → ‘22년 1000개사(누적))

- 아울러, 관련 업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체감이 가능한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실증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스마트 홈 실증사업 협력 MOU 개요 >

- ◆ 체결 기관 :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H공사, SH공사, 전품연,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
- ◆ 협력 내용 : ①스마트 홈(시티) 실증 및 표준화, ②IoT 가전 및 스마트 홈(시티)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③IoT 가전 및 스마트 홈(시티) 빅데이터 협력 등
- ◆ 향후 계획 : 스마트 홈 실증사업 참여, 스마트 홈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운영 등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백운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밀려들고 있다.”라며

- “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이 접목하면서 단순 가전제품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 안전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도 사물인터넷(IoT) 가전을 통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체감 서비스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업계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간담회 계기 개최한 상생협력 양해각서(MOU) 및 실증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 “스마트 홈은 가전사, 통신사, 건설사 등 개별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양해각서(MOU)를 통해 우리의 힘을 결집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양해각서(MOU)에 참여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IoT 가전 발전전략 주요내용

□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IoT) 가전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별첨)

① 사물인터넷(IoT) 가전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 추진

-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건설사와 협력을 통해 **1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규모 실증환경을 조성**해,
- (1단계) 관리비 절감 등 **소비자 체감 서비스**→(2단계) 교육, 유통 등 **근린시설 및 타 플랫폼 연동 융합형 서비스**→(3단계) 교통, 환경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확장형 서비스** 등 단계별 실증 프로젝트 추진
- * ‘(가칭) 스마트 홈 실증 프로젝트’ 기획(‘18년) → LH 등 공동주택 실증(‘19~’23년)

② 스마트 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종 간 협업체계 구축

- 가전, 통신, 서비스,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홈 발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이업종 간 협업을 촉진
- ①기술 로드맵 및 중소기업 기술 지원, ②빅데이터 기반 홈 서비스 창출, ③규제, 표준화 논의, ④스마트 홈 단지 건설 및 실증 등 협력



- 대기업 플랫폼 공유 지원기반인 ‘사물인터넷(IoT) 협업센터(전자진흥회 내)’의 지원 프로그램 및 수혜기업 확대 (‘17년 100개사 → ‘22년 1,000개사)

	~'17년	'18~'19년	'20~'22년
참여 대기업	가전사	통신사, 플랫폼사 등	건설사, 자동차사, 대학병원 등
지원 프로그램	IoT 모듈 제공, 교육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이중 플랫폼 연동 지원
지원기업수 (누적)	100개사	500개사	1,000개사

③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첨단센서 등 중소·중견기업 역량 제고 적극 지원

- 가전 빅데이터 플랫폼, 중소기업 사물인터넷(AI) 기술, 첨단 복합센서, 홈로봇 등 기술을 확보하여 중소·중견기업 보급
- * IoT 가전(~'22, 120억원), 첨단센서(~'20, 433억원), 홈 로봇(~'22, 270억원) 등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력, 금융, 세제 등 적극 지원**
- * (인력) 산학 연계형 IoT 교육, 재직자 IoT 가전 전환교육 등(~'22년, 16,500명)
- * (금융) 신산업 민관공동펀드(3,000억원), 제조 IoT 펀드(311억원)
- * (세제) 신산업 R&D투자 세액공제대상 확대 추진(IoT 보안기술, 스마트 홈 서비스 등)
-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한 디자인, 기술, 제조혁신, 서비스 등 **쏠주기 지원**



④ 스마트 홈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정

- 에너지 **효율 등급제 기준에 IoT 가전 추가 확대*** 등 보급 확산 촉진
- * 효율 1등급 IoT 가전 : (현행) 에어컨 → (확대) 원격제어 기능을 갖춘 모든 IoT 가전
- 스마트 홈 에너지 서비스 확산을 위한 ‘**수요자원(DR)**’ 거래시장 확대
- * ‘국민 DR’ 실시(‘19년) 및 향후 원격 절전 기능을 갖춘 IoT 가전 참여 허용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등 **제도 및 표준 정비**
- * (현행) 유선(485통신) 네트워크 기반 → (확대) 무선 IoT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반영

⑤ 한국형 스마트 홈 수출 지원 및 해외 인증 지원

- 실증단지를 해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수출과 연계 국내 스마트 홈 기기, 설비업체들의 동반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시 현지 제품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인증 시험기관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 확대

전자부품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현판식

□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는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설치되며, 중소 가전사 및 부품사 등을 **에어가전*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에어가전 :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Air)를 이용한 가전제품

- 에어컨제어모듈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 신뢰성 평가 장비도 구축하여, 중국 등 **해외인증 시험**도 수행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1. IoT 가전 발전전략 발표 및 업계 간담회 개요
2. 백운규 장관 모두 발언
3.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방규철 사무관(☎ 044-203-4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IoT 가전 발전전략 발표 및 업계 간담회 개요

□ 개최 배경

- 산업부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의 ‘5대 신산업프로젝트’로 추진하는 ‘IoT 가전 발전전략’ 발표 및 성과창출 방안 논의
- IoT 가전 및 스마트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 상생협력, 異種업계 간 협업체계 구축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3.16(금), 11:50~13:50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 참석자 : 총 22명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혁신성장실장, 산업정책실장, 시스템산업정책관, 광주시 경제부시장
 - (유관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진흥회, 스마트홈산업협회 등
 - (업계) 가전, 통신, 건설, 홈네트워크, SW, 서비스사 대표 등

구 분	업 체 명
가전사	삼성전자, LG전자, 쿠첸, 대우위니아
통신, 건설사	SK텔레콤, KT, LGU+, LH공사, SH공사
홈네트워크, SW, 서비스	코맥스, 현대통신, 에스원, 와이즈넷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사전 행사	11:50 ~ 12:00 10' 스마트 홈 실증사업 협력 MOU 체결 * 가전/통신/건설사, 전품연, 전자진흥회 등	MOU 당사자 ※ 장관님 임석
	IoT 가전 상생협력 MOU 체결 * 가전/통신/플랫폼사, 전자진흥회	
발전 전략 발표 및 간담회	12:00 ~ 12:05 5' 모두 말씀	장관님
	12:05 ~ 12:15 10' IoT 가전 발전전략 발표	산업부
	12:15 ~ 13:15 60' 토 론	참석자
	13:15 ~ 13:20 5' 마무리 말씀	장관님
부대 행사	13:25 ~ 13:40 15' 에어가전 및 스마트 홈 전시 관람	
	13:40 ~ 13:50 10'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현판식	

구 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산업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광주시	박병규	경제부시장	
기업	김현석	삼성전자 가전(CE)부문장 사장	가전사
	이감규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	가전사
	박성관	대유위니아 대표이사	가전사
	이대희	쿠첸 대표이사	가전사
	허일규	SK텔레콤 IoT/Data사업부장(전무)	통신사
	김준근	KT GiGa IoT 사업단장(전무)	통신사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상무)	통신사
	노성화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사)	건설사
	김소겸	SH공사 택지사업본부장(이사)	건설사
	변우석	코맥스 부사장	홈넷사
	이건구	현대통신 대표이사	홈넷사
	육현표	에스원 대표이사	서비스사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이사	플랫폼사
학계	양성현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TF 민간 위원장
유관기관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최상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본부장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입니다.

우리나라 가전 생산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여러분을 뵙고
IoT 가전 발전전략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개최배경

최근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와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수입규제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경고의 신호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 12월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에서 발표한
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IoT 가전" 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3 IoT 가전의 중요성

그간 우리 가전산업은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TV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세탁기·냉장고 2위, 에어컨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가전 강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면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전산업은 새로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공장 등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밀려들고 있습니다.

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을 입힌 IoT 가전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결합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제어하면서 우리 삶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다양한 주거욕구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IoT 가전은 단순한 제조산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면서 연관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IoT가전 시장 현황과 우리의 과제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이 '16년 700억불에서 ' 20년 1,336억불로 매년 17%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전사를 비롯해 글로벌 ICT 기업들도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AI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와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에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구글은 스마트 홈 운영체제(OS)를 별도 개발하여 자사 중심의 생태계로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 개최된 CES와 MWC에서도 글로벌 ICT기업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첨단기술을 스마트 홈을 통해 구현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양상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IoT 가전과 스마트 홈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가전 제조 기술력과 통신 인프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의 거주 형태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IoT 대응역량, 아직 부족한 스마트 홈 서비스, 이업종 기업 간 협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산업 성장과 더 나아가 해외 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입니다.

5 향후 정책방향

IoT 가전이 스마트 홈을 구현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IoT 가전의 구매를 촉진하는 만큼 스마트 홈 서비스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 등 소비자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대규모 실거주 단지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만들고 중소기업에게 사업화 레퍼런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 홈 모델은
국가 스마트시티에도 적용하는 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스마트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전사, 통신사, 건설사 등
전체 생태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업종 간 협업체제를 구성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간 협업의 장인 ‘전자 IoT 협업센터’도 활성화하여
참여 대기업을 현재 가전사 중심에서 통신사, 플랫폼사 등으로 확대하고
‘22년까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 가전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2년까지 1,129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가전사의 취약한 분야인 빅데이터, AI 및

IoT 센서 등 부품을 비롯해
차세대 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홈 로봇 분야 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금융, 세제 등 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가전 에너지효율등급 및 수요관리(DR) 제도를 개정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IoT 가전이
시장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스마트 홈 설비 및 기술 표준도 개정하여
다양한 IoT 기기, 설비들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스마트 홈 제품, 서비스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 홈 실증단지에 해외 도시정책 공무원을 초청해
해외 수출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 수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인
해외 시험인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 마무리 말씀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컬링, 봅슬레이 등 단체 경기에서 세계적 강호들을 맞아
우리 선수들이 힘을 뽐낼 뭉쳐 거둔 뜻밖의 성과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마트 홈도 가전사, 통신사 등 개별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기업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단체 경기와 유사합니다.

오늘 체결한 상생협력 MOU와 실증사업 협력 MOU가
IoT 가전, 스마트 홈 '팀 코리아'의 힘을 결집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힘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부3

IoT 가전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가전이 단순 기능 중심에서 AI, 빅데이터가 결합된 IoT 가전으로
진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

○ IoT 가전은 기존 가전을 급속히 대체하면서, 정체된 가전산업을
재도약시키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글로벌 IoT 가전 시장(NR, '15) : ('15) 52억불 → ('20) 340억불

< IoT 가전 활용 서비스(예시) >

냉장고	유통기간 감지	→	식료품 자동 주문	→	스마트 유통
에어컨	전력 모니터링	→	냉방온도 원격 제어	→	에너지 관리
정수기	사용이력 감지	→	독거노인 장기 미사용 통보	→	실버 케어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여가활동 증시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주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스마트 홈 서비스를 확대

*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SA, '15) : ('15) 600억불 → ('20) 1,336억불

○ 스마트 홈 서비스 확대는 핵심 디바이스인 IoT 가전의 수요를
촉진시키면서 IoT 가전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

2 산업 현황 및 평가

1 스마트 홈 발전양상 및 관련 생태계

□ 자동화 위주의 홈 네트워크에서 IoT, AI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확장형 스마트 홈 서비스로 발전

○ 서비스의 범위도 단일 세대 내에서 공동주택 전체 단지, 근린시설
및 도시까지 확장

- 관련 생태계는 가전사, 건설사, 통신사 중심에서 SW, 센서, 자동차,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 스마트 홈 발전 추세 >

구 분	스마트홈 1.0	스마트홈 2.0	스마트홈 3.0	스마트홈 4.0
개 념	홈오메이션	홈네트워크	IoT 홈	커넥티드 홈
통신방식	유선	유선	무선	무선
제어기기	스마트 TV	월패드	IoT 가전	AI 가전, 로봇 등
주요기능	VOD 서비스	가정 내 제어 (엘리베이터 등)	외부 원격 제어, 모니터링	자율 동작, 개인 맞춤, 플랫폼 간 연동
관련 업종	가전사	가전사, 건설사, 홈넷사	가전사, 건설사, 통신사	SW, 센서, 자동차, 의료, 에너지 등

2 국내 현황 및 평가

- (가전) 대기업은 글로벌 선도, 중소가전사 및 부품사 역량 취약

- 대기업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IoT 가전 출시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소가전사는 대응역량 부족*으로 **IoT 가전으로의 전환이 저조**

* 중소기업 IoT 인지도 : 30%, IoT 활용비율 : 14.9% ('14, 스마트홈산업협회)

- (서비스) 단순 제어 중심의 초기 단계로 소비자 체감 서비스 부족

- 가전사, 통신사 등에서 원격 모니터링, 제어 등 서비스 중이나, 적극적인 구매를 일으키는 킬러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통신사 스마트 홈 서비스는 대부분 인터넷과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 중

- (생태계) 스마트 홈 확산을 위한異업종 간 개방형 협력 미흡

- 통신사, 가전사, 홈넷사 등 주요 업계 간 플랫폼 경쟁으로 기기 간 연동성 문제 등 **융합 서비스 확대에 애로**

- (제도) IoT 등 기술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표준 및 제도 미비

- 기기 간 연동 표준 및 설비 기준 등이 유선 기반으로 규정되어, IoT 등 진화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3 향후 정책 방향

비전	'스마트 홈' 서비스 시장 조기 확대를 통한 IoT 가전산업 혁신 성장
'22년 목표	IoT 가전 기반 지능형 스마트 홈 10만호 구축 IoT 가전 및 스마트 홈 분야 신규 일자리 1.6만개 창출

1 스마트 홈 실증 프로젝트

- 스마트 홈 서비스 확대 및 중소 가전사 등의 사업화 레퍼런스 제공을 위한 대규모 공동주택 실증 프로젝트 추진

- (단계) ① 체감형 서비스(관리비 절감 등) → ② 융합형 서비스(근린 시설 서비스 연동) → ③ 스마트시티로 확장(전체 도시 통합 서비스)

- (내용) 서비스 설계, 필요 요소기술 개발, 공동주택(신축/기축) 및 스마트시티 실증, 기술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단계 (추진년도)	서비스	개발 기술 (예시)	실증
1단계 ('18~'19)	[체감형 서비스] - 세대/공동 전기료 및 냉난방비 절감 - 기축/노후주택 스마트 홈 서비스	- 에너지 빅데이터 및 통합관리 서비스 기술 - 기축아파트 대상 보급형 스마트홈 모델 개발	공동주택 단지 (기축/신축)
2단계 ('20~'21)	[융합형 서비스] - 이종 서비스 플랫폼과 연동 (O2O, 헬스케어, 유통) - 사회문제(재난, 안전) 해결 서비스	- 이종 플랫폼 간 상호연동, 데이터 교환 기술 - 빅데이터 활용 상황 인지, 인공지능 기술	공동주택 단지 및 근린시설
3단계 ('22~)	[스마트시티 서비스] - 스마트시티와 연계 통합 서비스 (교통, 교육, 환경, 행정 등)	- 공공 데이터 연계, 개인맞춤 서비스 기술 (패턴분석, 지능화 맞춤형)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2 개방형 협업 생태계 조성

- **(異업종 협업)** 스마트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전사, 통신사, 건설사 및 서비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홈 발전 협의체」 운영
⇒ 향후 유통, 자동차, 보험사 등 연관 분야까지 확대



- **(대중소 협업)** 대기업 IoT 플랫폼을 중소 가전사 등에 확산하기 위한 기업 지원기반인 「전자 IoT 협업센터(전자진흥회 내)」 운영 확대

	~'17년	'18~'19년	'20~'22년
참여 대기업	가전사	통신사, 플랫폼사 등	건설사, 자동차사, 대학병원 등
지원 프로그램	IoT 모듈 제공, 교육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이중 플랫폼 연동 지원
지원기업수 (누적)	100개사	500개사	1,000개사

3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 **(기술개발)** 중소형 IoT 가전 및 핵심부품 등 기술 개발
 - (IoT 가전) 중소 가전사의 취약 분야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제품 간 연동 등을 지원하는 IoT 가전 기술 개발 (~'22, 120억원)
 - (IoT 센서) 고정밀 모션센서, 위치센서, 가스감지센서 등 IoT 가전 관련 첨단센서 R&D 집중 투자 (~'20, 433억원)
 - (홈 로봇) 가사지원, 헬스케어, 교육용 등 서비스 로봇 개발(~'22, 270억원)

-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oT 산학 연계교육 확대* 및 재직자 대상 IoT 가전·플랫폼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17년) 시립대 등 29개 대학/1,400명 → ('18년) 50개 대학/ 총 4,500여명
- **(금융 지원)** 신산업 민관공동펀드(3천억원)*을 활용하여 IoT 가전 등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 창업 및 M&A 활성화 지원
 - * 중소·벤처기업 1,000억, 중견기업 2,000억 투자 계획
- **(세제 혜택)**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IoT 가전, 스마트홈 지속 확대
 - * ('17년) IoT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 → ('19년) IoT 보안, 스마트 홈 서비스 기술 등

4 시장 확대 기반 강화

- **(제도 개선)**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산업·국토·과기부 공동고시)'을 IoT, 클라우드, ESS 등 신기술 반영하여 개정
- **(효율등급제)** 에너지 효율 등급제 기준에 IoT 가전 추가 확대*
 - * 효율 1등급 IoT 가전 : (현행) 에어컨 → (확대) 원격제어 기능 보유 모든 IoT 가전
- **(수요관리)** '국민 수요반응(DR)' 시장 참여대상에 원격 전원제어 기능을 갖춘 IoT 가전 추가 검토(Auto-DR)
- **(빅데이터 지원)** 소비자 이용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제품·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빅데이터 연구센터(전품연))
 - * ('18년) 가전,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 ('19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 데이터

5 수출 산업화 지원

- **(스마트시티 수출 연계)** LH 등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 시 국내 스마트 홈 기기, 설비업체 동반 진출 지원
 - * (예) LH 쿠웨이트 압둘라시 주택단지(25만세대) 설계 시 시방서에 국내제품 규격 반영
- **(해외 인증지원)** 국내 인증시험기관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기관과의 상호 인정 체계 구축 확대
 - * 전품연-(中)상하이계량기시험연구원 상호인정 협약('17.12월) → 미국('18), 일본('20) 등